

“일관된 기준”

약3:13-18

로버트 풀검이라는 사람이 쓴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운다’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강조점은 간단합니다. 인생의 모든 해답은 고급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단순한 지식에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대단한 지식이 있어서 성공했다기 보다는 매우 단순한 몇 가지 진리를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명쾌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고난이라는 수렁에서 쉽게 벗어나 곤합니다. 그렇다면 신자들이 가져야 할 복음적인 일관된 기준은 무엇일까요?

1. 구원의 기준

우리를 구원하는 진리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죄인 된 인간은 심판을 받지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의 저주를 담당하고 죽으셨으며 이것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그리스도로만 가능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방황하는 인생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참 오랫동안 방황했습니다. 올바른 구원론을 선택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선택의 윤리학(Ethics of decision)이라는 책에 보면 사람이 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가지 선택을 잘 해야 되는데 첫째는 직업의 선택이요, 둘째로는 배우자의 선택이요, 셋째는 종교의 선택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그리스도를 통해 단번에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살아가야 할 때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원도 예수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신앙생활도 예수그리스도를 본 받아야 합니다.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2. 믿음의 기준

야고보서의 주제는 ‘행함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된 이유가 송아지 신앙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금송아지는 책망하지 않습니다. 복만 빌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어 우리를 책망합니다. 제약이 많습니다. 그러니 불편한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도 헌신이나 의무에 대해 믿음대로 살아야 하는 것에 대해 불편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기준을 확실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참 지혜가 어떤 것인지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늘의 지혜의 기준을 확실히 알고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1) 성결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에 하나님의 자녀도 동일하게 거룩을 추구해야 하는데, ‘성결’이 거룩의 첫 걸음입니다. 제사장의 모자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할 때 언제나 하나님 편에서 먼저 요구하시는 것은 ‘성결’입니다. 출 12 장 출애굽 전에도 성결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여호수아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며 요단강 도하 직전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스스로 성결케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결해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성결은 버릴 것은 버리고 끊을 것은 끊는 행위이며, 주님을 맞을 준비로 살아가는 삶, 그리고 주님의 뜻으로 결단하는 삶을 이야기 합니다. 또한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두 마음은 이미 타협된 마음입니다. 이미 변질 된 마음입니다. 우리의 삶속에 "이것쯤이야. 하나님이 눈감아 주시겠지. 이것쯤이야 괜찮겠지." 사소한 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눈감고 나가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성결한 삶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2) 긍휼

신자의 행위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합니다. 상대를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면 화평하게 되고 관용하고 양순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에서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라고 했습니다. 남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면 긍휼히 여김과 불쌍히 여김을 당합니다.

마 6:14~15 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라고 했습니다. 남을 용서하지 않고 심판하면 자기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눅 6:37 에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인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남의 죄를 보고서 비평하고 정죄하고 돌로 치면 반드시 내가 정죄 받고 돌로 얻어 맞을 때가 다가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시내산 밑에 사는 사람과 갈보리산 밑에 사는 사람이 다릅니다. 구약은 시내산 밑에서 십계명을 받았습니니다. 엄중한 계명대로 살고 그 계명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갈보리산 밑에 가면 예수님이 '네가 지은 죄를 내가 다 맡았다. 죄의 빛을 내가 다 청산했으니 너는 나를 믿고 빛에서 해방되라.' 용서와 사랑이 갈보리 산에 넘쳐납니다. 주님을 통해서 용서와 사랑이 강물같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하고 긍휼을 베푸시길 바랍니다.

(3) 화평

예수님께서서는 끝까지 용서하셨습니다. **“(눅 23:34)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스테반집사도 돌을 맞아 죽으면서도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말을 남기고 죽음을 당했습니다.

영국에 토마스 무어라는 믿은 좋은 귀족이 무고한 중상모략으로 사형선고를 받으면서 그가 재판장에게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사형연도했지만 당신도 예수 믿고 나중에 저 하늘 나라에서 나와 함께 손잡고 영원토록 기뻐하며 행복하게 사는 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말을 듣고 재판장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물어보기를 “나는 당신을 사형을 연도를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해서 나에게 선한 말을 합니까?” 토머스 무어경은 “내가 그렇게 할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먼저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서로 긍휼을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민 생활이 그렇고 그렇습니다. 서로 용납하고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아내는 나이 들어 허리가 처지는 남편을 불쌍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은 곱던 얼굴 아름답던 손에 주름살과 굳은 살이 베기는 부인을 보며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3. 용서의 결과 - 회복

1999년 코소보전쟁 중 미군 세 사람이 포로로 잡혔습니다. 그 중 한 명인 크리스토퍼 소토운은 석방될 당시 자기를 가둬두었던 보초를 위해 꼭 기도를 해주고 떠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그는 허락을 받아 그 감옥의 보초 자기에게 몹시 고통을 주고 괴롭힌 보초에게 가서 "당신이 나를 괴롭힌 것을 용서합니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고 기도하고 돌아 섰습니다. 다른 동료들이 손가락질했습니다. "죽도록 박해를 당하고 발길로 채이고 매로 때린 그 사람을 용서하고 축복하고 돌아오다니 넌 어떻게 된 사람이나?" 그러나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나를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용서 못하고, 축복 못하고 미국으로 돌아가면 평생에 원한이 내 마음에 쌓여서 쓴물을 낼 것 이기에 내가 그것을 청산하고 돌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군인은 고향에 돌아가서 마음에 안정을 누구보다 빨리 얻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동료들은 내내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고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고 가정이 파괴되고 고난을 당했으나 용서한 이 사람은 건전한 생활을 시작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맥아더 장군은 "남의 과오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이다."라고 말했습니다.용서와 건강의 관계를 40년 동안 연구해온 북캘리포니아의 태도치유연구센터가 내린 결론에 의하면 '용서는 건강도 회복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용서해야 마음도 건강하고 육체도 건강하고 가정도 건강해 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처절하게 몸 찢고 피 흘린 것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용서를 받은 우리들은 용서의 빛을 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고 용서해줘야 될 빛을 진 사람으로 이웃을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는 빛을 깊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더 큰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경험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눔의 시간

1. 이번 주 설교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이였으며 내가 적용한 것은 무엇입니까?
2. '성결한 삶'을 위해서 끊어야 할 습관(행동), 결단해야 할 것, 한 마음으로 합쳐야 하는 두 마음들 무엇입니까?
3. (주위 사람을 통해)경험하거나 누린 최고의 긍휼은 무엇이였습니까? 그 긍휼함을 통해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4. 당신이 어렵게 결단한 용서의 사례를 나눠 주시고, 용서의 대상과 당신에게 주어진 은혜를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5. 3주 전에 결단한 VIP를 향한 사랑의 실천 프로젝트 실행 결과를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6. 10월 20일 사랑나눔축제를 준비하며 VIP로 품을 영혼들을 종이에 적어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